

백만 어린이 목주기도 - 2020
세계의 일치와 평화를 위하여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 년은, 그리고 어쩌면 2020 년대는, 훗날 역사에 “코로나바이러스 시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의 심각성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으며,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파괴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 바이러스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같은 세상이 아니며,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 왔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자신의 취약함과 허약함, 필멸성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각국에서 도입한 모든 감염 예방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포와 불안, 무력감이 도처로 퍼져 나갔습니다. 비록 코로나 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연대와 사심 없는 봉사, 뛰어난 사회적 회복의 감정을 일깨웠지만,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위험 요소이자 잠재적인 바이러스 감염원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공중보건 위기가 더 오래 지속되고 그 심각성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인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코로나 19 말고도 다른 재난과 전쟁의 위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없는 인류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바이러스나 우리의 질병, 필요성과 관계없으며, 궁극적으로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미래에 치명적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마태 8,17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에게는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스스로 세상의 모든 질병과 악을 물리치는 궁극적인 “해독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면역자로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백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하느님을 외면한 결과로 세상을 고통받게 한 역병 앞에서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은총은 더욱 커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기에, 특히 당신의 성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특히나 많은 성인들이 종말론적인 시기로 보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2020 년 상반기에 우리는 성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탄생 100 주년을 축하하였는데, 1972 년 당시 카롤 보이티와 추기경이었던 그는 미국 주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 복음과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 최후의 전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성모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모 성심을 통하여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지난 200 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수많은 곳에 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지금 이 시기를 “마리아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모든 예측과 달리, 성모님은 인류에게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치료법을 다시 한번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 기적의 메달을 몸에 지니고,

묵주기도에 충실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 성경을 읽고, 사랑의 희생을 실천하며, 특히 교회의 성사에 우리 스스로가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 년에도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ACN 의 기도 캠페인 ‘100 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0 년 10 월 18 일 주일, 만약 학교나 유치원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10 월 19 일 월요일에, 어린이들과 다 같이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부디 우리의 이 묵주기도 캠페인이,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보호 안에서 새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배포하는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편지’는 프랑스 파리 루드박에서 1830 년에 일어났던, ‘마리아 시대’의 시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이곳에서 처음 ‘원죄없이 잉태된 자’로서 성 가타리나 라부레 수녀 앞에 발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8 년 후인 1958 년, 비오 9 세 교황이 1954 년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믿을 교리를 반포하고 4 년 후, 성모님은 루르드에 발현하시어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성모님은 가타리나 라부레 수녀에게 프랑스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칠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에 의해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십자가가 멸시를 받으면, 모든 인간은 더욱 고통에 잠길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성모님은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지구본을 당신 손안에 안전하게 들어 보이시며, 하느님을 믿고 기도에 충실하며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보호와 도우심을 가타리나 수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모습대로 메달을 만들어서,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바치며 메달을 지니고 다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발밑에 뱀을 밟으시고 양손을 뻗으시어 온 세상을 향한 은총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악’인 사탄을 물리치실, 모든 은총의 종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성모님께 바치며,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보호의 망토 아래 피난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어린이들을 성모님의 보호의 망토 아래로 데려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성모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이심을 알게 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게 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보호, 앞으로 삶의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갑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Mauro Kard. Piacenza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ACN 국제 재단장

P. Martin M. Barta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ACN 국제 지도신부